

# ART & SPACE

MIA PEARLMAN



Mia Pearlman - Since receiving a Bachelor of Fine Arts from Cornell University in 1996, Mia Pearlman has exhibited internationally in numerous galleries, non-profit spaces and museums, including the Museum of Arts and Design (NYC), Plaatsmaken (Netherlands), Roebling Hall Gallery (NYC), Smock Mellon (Brooklyn, NY), the Centre for Recent Drawing (London), and Morgan Lehman Gallery (NYC) and the Montgomery Museum of Fine Arts (AL). Upcoming exhibitions include the Benwick Gallery at the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and the Indianapolis Museum of Art. She received a 2011 Artist Grant from the New York Foundation for the Arts, the 2011 Robert Sterling Clark Visual Arts Space Award, which grants a free one-year studio space at The Marie Walsh Sharpe Art Foundation's Space Program, a Pollock-Kraemer Foundation Grant (2008), a Foundation for Contemporary Arts Emergency Grant (2008) and an Established Artist Fellowship from UrbanGlass (2009). Pearlman lives and works in Brooklyn, NY.

PENUMBRA, Plaatsmaken, Arnhem, the Netherlands, 2010



PENUMBRA, Plaatsmaken, Arnhem, the Netherlands, 2010



PENUMBRA, Plaatsmaken, Arnhem, the Netherlands, 2010

Mia Pearlman makes site-specific cut paper installations, ephemeral drawings in both two and three dimensions that blur the line between actual, illusionistic and imagined space. Sculptural, dynamic and often glowing with natural or artificial light, these imaginary weather systems appear frozen in an ambiguous moment, bursting through or hovering within a room. Her work's process is very intuitive, based on spontaneous decisions in the moment. She begins by making loose line drawings in India ink on large rolls of paper, and then cut out selected areas between the lines to make a new drawing in positive and negative space on the reverse. 30-80 of these cut paper pieces form the final installation, which she creates on site by trial and error, a 2-3 day dance with chance and control. These installations evolve her mediation on creation, destruction, and the transient nature of reality.

<Penumbra> seemingly emerges through the wall of Plaatsmaken, the gallery in Arnhem, Netherlands, and eddies around the gallery space. Reflecting the dim light of the Northern European skies, it cuts through the cloudcover to reveal the occasional beam of light.

미아 펄먼은 특정한 장소에 종이 설치물과 비영구적인 그림을 2차원 및 3차원으로 배치하여 실제와 환상, 그리고 가상의 공간의 경계를 허무른다. 자연광이나 인조광 아래에서 조각형태로 역동적으로 빛나는 이 구조물들은, 가상의 날씨로 인해 모호하게 얼어붙은 형태로 보이다가도, 갑작스레 쏟아져 나오거나 갤러리 공간을 떠도는 듯 존재한다. 펄먼의 작업 과정은 매우 직관적이며 그 순간순간의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 또한, 그녀는 대량의 종이에 인도 잉크로 윤곽을 그린 후, 선과 선 사이 특정 구역을 잘라내어 긍정적 공간과 부정적 공간이 마주하는 새로운 그림을 이끌어 낸다. 최종 설치물은 30~80개의 컷 페이퍼 조각으로 만들어지는데, 현장에서 실험과 시행착오, 또한 조절하고 마무리하는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와 같이 제작된 설치물은 창초, 파피, 현실의 순간적인 속성을 통찰하는 펄먼의 철학이 담겨있다. 작품 <페넘브라>는 네덜란드 아르헴에 있는 플라츠마켄 갤러리의 벽을 매끄럽게 둘러싸며 그 공간을 따라 소용돌이를 만들어 낸다. 북유럽 하늘의 흐릿한 빛이 반영된 이 설치물은, 간혹가다 빛줄기를 드러내 주는 절개된 구름덮개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 ART & SPACE

MIA PEARLMAN



미아 펄먼 : 미아 펄먼은 1996년 코넬대학교에서 미술학위를 받은 뒤, 뉴욕의 아트 앤 디자인 미술관이 소맥멜론, 로복원 홀 갤러리, 모건 리만 갤러리, 네덜란드의 플라츠마켄, 런던의 드로잉 센터, 플라베라의 쾨고메라 미술관 등을 포함한 여러 갤러리와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스미스소니언 미국미술관의 렌릭 갤러리와 인디애나폴리스 예술박물관에서 전시회를 앞두고 있다. 펄먼은 뉴욕예술재단으로부터 2011년 예술가 후원금을 받았으며, 로버트 스틸링 클락 비주얼 아트 스페이스 어워드를 수상하여 마리 윌시 사프 예술재단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으로 스튜디오 공간을 일년간 지원받았다. 그 밖에도 그녀는 폴록 크라프너 재단과 현대예술재단에서 각각 2008년에 후원금을 받았으며 에번클레르스 미술가 지원금 대상에 선정된 바도 있다. 미아 펄먼은 현재 뉴욕 브루클린에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GYRE, Islip Art Museum, Long Island, NY, 2008



VOLUTION



INRUSH, Museum of Arts and Design, NY

<VOLUTA> is a limited edition laser cut sculpture made of translucent high impact polystyrene. Fun and easy to construct, it offers art lovers of all ages the opportunity to create and own a complex, luminous 'paper' sculpture. In minutes you can transform a two dimensional piece of paper into a swirling three dimensional vortex. The work is meant to hang in a window or near a light source, but can also sit on a pedestal or horizontal surface. Several feet of monofilament is included for hanging. Each VOLUTA is invisually signed and numbered by the artist.

<GYRE> appears to emerge from the ceiling of the Carriage House at the Islip Art Museum, coiling out of itself. From every angle, the unseen is unpredictable: what's on the other side is not what one expects.

〈볼루타〉는 반투명한 내충격성 폴리스틸렌을 레이저로 커팅하여 제작된 한정판 조각 작품이다. 쉽고 재미있는 구성이 가능한 이 제품은, 모든 연령의 예술 애호가들에게 빛을 발하는 복잡한 형태의 '종이' 조각을 직접 제작하여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몇 분 내로 2차원의 종이 조각을 굽이치는 3차원의 소용돌이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창문이나 광원 근처에 매달도록 설계됐으나, 받침대 혹은 수평면에 얹힐 수도 있다. 매달 때 사용하는 수 미터 길이의 모노필라멘트가 동봉되며, 각 볼루타에는 필면의 자필 사인과 작품 번호가 보이지 않게 기재되어 있다.

〈자이어〉는 아이슬립 예술박물관의 캐리지 하우스 천장을 뚫고 휘어져 나오는 모습으로 설치된 작품이다. 어떤 각도에서 봐도 보이지 않는 부분은 예측할 수 없어, 누구도 반대편의 형태를 예상할 수 없다.



HAVOC, A.D. Gallery at UNC Pembroke, North Carolina, 2011



EYE, Centre for Recent Drawing, London, 2008



VIBRISSA, 2010



WHORL #4, 2010

<EYE> is a cloud vortex swirling around the sky itself. Seemingly suspended between the visible world inside the gallery and an invisible world beyond the physical space, it appears to exist in a dimension that transcends interior and exterior.

<VIBRISSA> and <WHORLS> are large sculptural groupings that are configured according to each specific site. These multi-part works are her first attempts to create monumental sculpture out of blown glass. This goal will be realized in <BRUME>, a giant glass installation currently in development. A luminous, protean gust of weather cascading out of the wall and through the floor, it will be made of 700+ pounds of blown, cut, sandblasted and drilled glass held aloft on a hidden steel armature.

Text edited by Liz Yisun Kwon, Editor : Lee HyeKyung\*\*\*Image courtesy of the by Mia Pearlman

<아이>는 하늘에서 소용돌이치는 구름의 형태이다. 이 작품은 갤러리 내에 보이는 현실 세계와 물리적 공간 너머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걸쳐 매달려 있으며, 내부와 외부를 초월하는 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비브리사>와 <월즈>는 각각의 특정한 장소에 따라 제작된 대규모 조각물이다.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이 작품들은 미아 펄먼이 처음으로 분유리 작업을 시작한 기념비적인 조각 그룹이다. 현재는 거대한 유리 설치물인 <브룸>을 제작중 인데, 이는 펄먼의 분유리 작업의 목표를 더욱 실현해 줄 것으로 보인다. 벽과 바닥을 뚫으며 빛 줄기와 돌풍이 몰아치는 이 작품은 입으로 불고, 절단하고, 모래로 분사하고, 드릴로 구멍을 낸 300kg이 넘는 유리가 사용되어 제작됐으며, 숨겨진 철제 뼈대를 이용하여 완성물을 천정 높이 매달 계획이다. 글 편집 : 권이선, 편집 : 이혜경\*\*\*저작권은 미아 펄먼에 있다.